

바다·갯벌, 소나무 숲 펼쳐진 영광 상정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됐어요

무등산 중봉 군부대 이전지

생태 복원 우수사례로 뽑혀

영광군 상정마을이 국가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에, 광주시 무등산 중봉 일대 군부대 이전지는 자연생태복원 우수사례로 신규 지정됐다.

또 무안 상동마을, 장흥 운주마을, 영광 효동마을 등 3곳은 자연생태우수마을로, 광주 서구 운천저수지는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로 재지정됐다.

영산강 유역환경관리청(청장 최용철)은 15일 이들 마을을 포함 광주·전남·제주·경남(남해·하동) 지역 15개 마을을 환경부 지정 자연생태우수마을 및 복원우수마을로 선정, 지정서와 표지판을 수여했다.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신규 지정된 영광군 염산면 상동마을은 마을 앞에 드넓은 바다와 갯벌, 염전 및 소나무 숲이 펼쳐져 자연경관이 우수한 데다 55세대, 119명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녹색체험추진위원회를 구성, 적극적인 생태보전활동을 펼쳐온 점도 높

은 점수를 얻었다.

광주 무등산 중봉 일대 군부대 이전지는 광주시가 지난 1996년부터 4년동안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4만1천여m²에 13억5천여만원을 들여 생태복원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외부 유입없이 주변의 풀풀기와 토양먼을 이용해 원식생으로 우수하게 복원, 생태복원의 선진경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백로와 왜가리, 흥연 등이 서식하는 문화재보호구역인 무안 상동마을과 다양한 야생화와 쇠똥구리를 이용, 쇠똥구리마을 체험축제를 열고 있는 징후 운주마을, 초가집과 물담길 등 자연환경 보존이 우수한 영광 효동마을 등은 지난 2005년에 이어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재지정됐다.

훼손된 저수지를 자연생태공원으로 조성해 해오라기 등 조류서식처이자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광주시 서구 운천저수지도 복원우수마을로 재지정됐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국가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된 영광군 염산면 두우리 상정마을 갯벌.

“영화 보면서 환경 소중함 느껴요”

광주 북구 17일부터

환경영화 무료 상영

광주시 북구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영상미디어를 통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담은 영화를 무료로 상영한다.

상영될 작품은 ‘펭귄·위대한 모험’ ‘이웃집 토토로’ ‘집으로’ ‘벌스 라이프’(A Bug’s Life) ‘빼

꼼’ ‘브라더 베어’(Brother Bear) ‘꼬마 떼지 베이브’ ‘쿠스코? 쿠스코!’ 등 8편이다. 상영 일자는 1월 17일·24일·31일이며, 상영 시간은 ▲일곡 도서관과 북구 문화의 집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북구 향토문화센터는 오후 2시다.

관람 문의는 북구청 환경과 환경관리팀, 062-510-1331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유엔이 정한 ‘지구의 해’ 맞아 환경보전 총력

에너지절약·자전거 대행진 등 생활 실천 운동

여섯 차례에 걸쳐 에너지관련 전문가나 기업, 일반시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장책개발 세미나, 광주·전남 신재생에너지 투어,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환경과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도 추진한다. 자전거 도로 중심의 정책을 이용활성화로 바꿔 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자전거의 안정성과 편리성 등 장점을 알려내기 위해서다.

‘자전거로 떠나는 남도여행’을 오는 10월까지 매월 한차례 진행할 예정이고, 4월20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자전거 대행진’도 계획중이다. 이밖에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 또 신안군 인근 섬에 공기 를 깨끗하게 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는 ‘지구를 살리는 나무 심기’와 함께, 매주 한 차례 지역 학교 등을 돌며 환경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광주전남녹색연합은 도시 공기를 맑게 해주는 마을 뒷산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숲 지킴이 활동을 할 예정이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1인 1 자전거 타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팀장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했던 사업들도 있지만 ‘지구의 해’를 맞아 시민들이 더 쉽고 참여하기 편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올해는 유엔이 정한 ‘지구의 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구의 위기가 전 세계적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진 위는 지구 온난화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남극의 빙하. 아래는 인도네시아 리아우诸島 깜빡르 지역의 자연습지.

〈광주일보 자료사진〉

■ ‘지구의 해’란?



유엔(UN)은 지구촌의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지구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정책에 반영하자는 의미에서 올해를 ‘행성 지구의 해’(International Year of Planet Earth·IYPE)로 선포했다.

국제지질과학연합과 유네스코가 공동으로 ‘지구의 해’를 제안해 지난 2005년 유엔총회

유엔, 지구촌 자연재해 예방위해 선포

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1개 회원국이 이에 찬성하며 제정됐으며, 유엔은 회원국에게 국가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지구의 해’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정부기관에 지구과학에 대한 관심과 인식 확대를 주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 지구의 안전 보존에 대한 문제를 지구과학이 얼마나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리는 것이며, 지구과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지구의 해에서 다른 과학주제들은 지하수, 자연재해, 지구환경과 인간건강, 기후변화, 지하자원, 도시환경 등 10가지이며 모두 사회와 관련성을 기초로 해 채택됐다. 무엇보다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 인력 및 연구비 증대와 지구과학의 사회 응용분야를 개발하고 지하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것 이 목표다.

지구의 해 행사는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본격적인 과학 프로

그램과 홍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09년에는 그동안 진행된 행사들을 종합평가한 후 향후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해가 되며 2010년 중순 공식활동이 종료된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12~13일 이를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UN 지구의 해 선포식’이 진행되며, 3월엔 캐나다에서 세계 광업 대표자 포럼을 시작으로 지질공원 신설, 전시회, 강연, 체험답사, 출판물 발간, 기념우표 발행 등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오는 4월23~25일 서울에서 지구의 해 선포식 및 지구과학 한마당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상다 명품 선풀세트

Fresh & Delightful

제철 수산물 맛보기

제철 과일 맛보기

제철 채소 맛보기

(주)무동산업 371-7095
011-601-7701

소비자 만족도 1위!!

한국 청결 청탁기 아파 친환경 신선 출판

제작 및 판매는 시설 청탁기 청탁 청탁 청탁

300~2000

(주)무동산업 371-7095
011-601-7701